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의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고 유 정

2014년 8월

고등학생의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고 유 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고유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8월

<국문초록>

고등학생의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고 유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분리-개별화 수준과 또래애착,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 고등학생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또래애착이 매개하는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하는 4개 고등학교의 2학년 남·여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또래애착, 공격성 검사 도구를 실시하고, 그 중 497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Levine, Green과 Millon(1986)의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도(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SITA)를 장근영과 윤진(1992)이 변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공격성 검사를 위해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질문지를 서수균, 권석만(2002)이 번역하여 수정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Revisd: IPPA-R), 김지연(1995)이 번역하고 수정한

* 본 논문은 201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에착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21.0에 의해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또래애착, 공격성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다는 것은 분리-개별화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은 높아지고,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으면 또래애착은 낮아진다. 또한 또래애착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은 낮아진다.

둘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애착이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 공격성과는 깊은 관련이 있으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서 애착이 또래애착으로 전이되는 것을 고려하고, 또래애착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5
3. 용어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7
1. 분리-개별화	7
2. 공격성	9
3. 또래애착	11
4. 선행연구 고찰	14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21
2. 연구도구	22
3. 연구절차	25
4. 자료처리	25
IV. 연구결과 및 해석	27
1. 분리-개별화, 공격성, 또래애착의 기술통계	27
2.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28
V. 논의 및 결론	32

참고문헌	37
Abstract	47
부 록	49

표 목 차

표 Ⅲ-1. 인구학적 통계	21
표 Ⅲ-2. 분리-개별화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23
표 Ⅲ-3. 공격성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24
표 Ⅲ-4. 또래애착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24
표 IV-1. 분리-개별화, 공격성, 또래애착의 상관관계	27
표 VI-2.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	29

그림 목 차

그림 IV-1.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3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발달단계상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중간단계로서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하다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김순구, 2003). 이 단계의 발달적 특징이 신체·정서·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서 전통적으로 부적응과 혼란의 시기로 여겨졌다(빈송미, 2007 ; 조수현, 2013). 이처럼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변화는 이전 발달 단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발달과업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신체적 변화, 자아 정체성의 혼란, 장래에 대한 부담과 불안, 과중한 학업 부담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고 문제행동을 경험하기도 한다(Williams & Lisi, 2000). 특히 권위에 반항적이며,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빈송미, 2007).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증대한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빈송미, 2007). 청소년들의 공격성은 흔히 성인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여 청소년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권용경, 2003 ; 빈송미, 2007). 그러므로 공격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상 특징적인 요소를 살펴보고 그 요소들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분리-개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1차적 분리-개별화는 유아기에 일어나고 2차적 분리-개별화는 청소년기에 일어난다. 분리-개별화란 이제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관계적 맥락으로부터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자각하면서 자아정체감을 발달시켜 가는 것을 말한다(김혜진, 2007). 이는 의존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인으로 성숙하려는 준비인 것이다(백옥경, 2010).

Blos(1979)는 자아의 적응체계 형성을 청소년기 발달의 주요지표로 간주하여, 청소년기 발달을 2차적 분리-개별화 과정(secondary-individuation process)으로 설명하였다. 2차적 분리-개별화는 청소년기의 자아가 부모로부터 이탈해 가는 과정으로 유아기 때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초월하여 자의식을 재조직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 관계를 거부하고 부모의 내재화된 영향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해방되어, 스스로 신체 및 성적 변화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한다. 그러나 분리-개별화과정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된 문제행동을 보이고, 감정을 과격하게 표현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박성하, 2005 ; 박지언, 2007 ; Achenbach, 1991).

청소년기는 공격성이 증가하고 전 생애에 걸쳐 공격적 행동장애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99).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양육자로부터 분리-개별화 되지 못하면 건강한 자기감을 확립하지 못하여 아동의 공격성이 야기된다고 하였다(이정혜, 2004).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발달적인 특징인 분리-개별화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분리-개별화는 다른 말로 심리적 독립이라 할 수 있는데, 애착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 중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약화시켜야만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선상화, 2009). 최근 가정을 벗어난 교육과 사회기관에서의 생활시간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대신 또래는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정서적 지원이 되고 있다 (방은령, 2004). 또한 또래와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된 활동이 또래와의 관계에 기반을 두면서 또래 집단은 청소년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준거집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래와 밀접한 관계는 청소년의 행동에 깊은 영향을 주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또래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된다(김경아, 2008). 즉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또래의 영향력이 증가하므로 또래애착은 청소년기시기에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2차적 분리-개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애착관계가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보호와 지지를 받는 애착관계에서 서로 보호하고 지지를 받는 애착관계로 변화하는데,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대체되어 또래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장휘숙, 1997). 애착은 전이되는 것으로 유아기에 형성되어 청소년기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 되고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긍정적 영향만 미치기도 하고 결핍되었을 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경렬, 2013). Bowlby(1973)는 아동이 애착욕구가 거부당하면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하였는데, 애착에 실패한 청소년은 문제행동이나 정신 병리까지 초래할 수 있다(이춘근, 2004). 이와 같이 또래애착은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박은민, 2010). 청소년들의 또래는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부모에 비해 청소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청소년기에 증가하는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청소년기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은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청소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독립적인 관계로 분리-개별화 되면서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평등한 관계를 형성한다. 또 애착은 부모애착에서 또래애착으로 전이되면서 청소년기에 또래의 영향력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청소년의 특징들은 청소년의 공격성을 설명하고 있다. 분리-개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자기감형성이 어려워 공격성 유발된다는 대상관계이론과(이정혜, 2004), 애착욕구가 거부당하면 공격성이 유발된다는 애착이론은 공격성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Bowlby, 1973). 두 이론적 근거로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은 공격성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 두 변인을 청소년의 발달과정으로 보면, 부모로부터 2차적 분리-개별화가 일어나면서, 애착이 또래애착으로 전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분리-개별화가 직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래애착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선정은,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 되어 또래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시기에 속하는 고등학생을 선정하였다. 고등학생은 애착관계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이 수정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잠재시기이다. 특히 또래애착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데, 고등학생 시

기는 자아정체감과 형식적 조작적사고의 발달이 정점을 이루는 시기로(이시은, 이재창, 2004), 고등학생에게 또래애착이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기는 아동으로부터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이 단계의 발달적 특징은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 되면서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애착이 또래애착으로 전이되는 시기이다. 하지만 분리-개별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래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공격성이라는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발달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된 청소년들은 또래에 대한 애착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또래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인 공격성 감소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기의 공격성에 관심을 가지고 분리-개별화가 직·간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여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속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여 청소년기 공격성의 감소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본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 또래애착, 공격성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분리-개별화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다루고자 한다.

연구문제 : 고등학생의 분리-개별화가 고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또래애착이 매개하는가?

가 설 : 고등학생의 분리-개별화가 고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용어정의

가. 분리-개별화

분리-개별화는 다른 말로 심리적 독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란 자녀가 부모와의 의존하는 유대, 결속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Levine, Green과 Millon(1986)의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도(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SITA)를 장근영과 윤진(1992)이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나. 공격성

공격성이라는 용어는 외현적인 행동 뿐 아니라 의도나 동기까지도 포함하여 사용되는 개념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뿐 아니라 지각된 의도, 행동결과, 행위자의 역할과 지위, 사회적인 가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공격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해적 행동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DHD(Buss & Durkee, 1957)를 보완하고자 개발 된 공격성 척도인 AQ(Buss & Perry, 1992)를 서수균, 권석만(2002)이 번역하여 수정한 한국판 공격성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다. 또래애착

Bowlby(1958)가 정의한대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또래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Revised : IPPA-R), 김지연(1995)이 번역하고 수정한 또래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분리-개별화, 또래애착, 공격성과의 관계와 고등학생의 분리-개별화 수준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 공격성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분리-개별화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는 중요한 발달과업 중에 하나로, 청소년기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나 동일시보다 자율과 독립의 욕구가 중시되는 시기로 성공적인 분리-개별화는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이다(한명숙, 2013).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라는 용어는 대상관계이론에서 많이 불리어지는데, 대상관계이론에서 보는 인간의 본성은 첫째, 인간은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와 동기가 있고, 둘째 개별화로 향해 나아가려는 욕구와 동기가 있다(김세영, 2004).

Rice(1992)에 의하면, 분리-개별화는 부모로부터 자아를 분리시키고 부모에 대한 의존적으로부터 독립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해 정의를 내려가는 과정이다. Hoffman(1984)은 분리-개별화란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independence)을 의미하는 것이며, 심리적 독립을 부모로부터의 정서적인 독립과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획득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분리-개별화는 부모에 대한 의존적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을 함으로써 정체감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Mahler, Pine와 Bergman(1975)의 이론은 인간의 탄생을 생물학적 탄생과 심리적 탄생을 구분하고 심리적 탄생을 분리-개별화라고 하였는데 아동이 부모와 맺는 관계의 성질을 기본으로 인간의 발달단계를 자폐적(Autistic), 공생적(Symbiotic), 그리고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 단계로 구분했다.

자폐적 단계에 있는 아동은 어머니를 의식하지 못하며 생리적 긴장, 즉 배고픔을 줄이기 위해 오직 생리적 반사에 의해 엄마의 유방을 찾는다. 이때는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어떤 사람의 존재를 희미하게 인지하기 시작한다. 물론 아직 엄마를 자기와 분리된 존재로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자기의 부분인 것처럼 엄마를 지각한다. 엄마와 유아의 공생이라는 말은 유아가 어머니와 자신을 ‘이중 단일체’로 경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엄마와 하나라는 느낌은 유아가 기본적인 만족감을 얻는 대상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이 만족감이 경험되어야 평생 동안 자기 신뢰, 자기 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분리-개별화 단계의 시작은 공생이 절정에 이른 시기에 일어나며 분리는 아동이 어머니와의 공생적 이중 단일체로부터 벗어나는 심리내적과정을 말한다. 아동은 어머니와의 공생단계(symbiotic phase)에서 시작하여 예측이 가능하고 현실적인 타자의 세계에서 인정되고 개별적인 정체성을 획득하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분리-개별화라고 보았다.

유아기에 일어난 첫 번째 분리-개별화 과정에 대한 Mahler의 설명에 대하여, Blos(1979)는 이를 확장하여 Mahler의 이론을 청소년 시기의 발달에 적용하여 두 번째 분리-개별화시기로 청소년기를 규정하였다. Blos(1979)는 청소년 시기를 ‘내가 누구인가’라는 인식이나 정체감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여 2차 분리-개별화는 청소년기의 자아가 부모로부터 이탈해 가는 과정이며, 유아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초월하여 자아의식을 재조직하려는 시도라고 하였다. Josselson(1988)도 Mahler가 언급한 유아가 분리된 개체로서의 자신과 타인을 구분 짓는 인지적 자각 과정이 제1의 분리-개별화 과정이라고 하고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제2의 분리-개별화 과정이라고 하면서 청소년기부모로부터의 독립과정을 분화(differentiation), 실행(practice), 회복(rapprochement), 안정화(consolidation)의 4단계로 설명한다(서민옥, 2010 재인용).

Erikson(1950)은 심리-사회적 발달 관점에서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를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단계로 정체감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부모로부터의 분리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청소년들은 분리-개별화 과정을 통해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발달하게 된다. 건강한 적응을

위해 초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 동안의 심리적 독립과 개체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선상화, 2009), 건강한 청소년 발달은 이 과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내느냐에 좌우된다고 밝히고 있다(김수임, 김창대, 2009). 청소년기의 분리-개별화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자신에 대해 정의를 내려가는 과정이다. 즉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 분리-개별화는 필수 불가결한 단계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 중요한 변인으로 청소년의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공격성

공격성(aggression)은 학자에 따라서 혹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는데, 행동이론가인 Buss(1961)는 공격성에 대해 ‘다른 유기체에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그 결과에 집중한다고 할 수 있다. 공격성의 정의는 관찰 가능한 행동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를 고려하는지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구분된다(빈송미, 2007; 천소형, 2009). 첫째는 공격행동의 특성 및 반응과 같은 가시적인 관찰결과에 의존하여 객관성을 가질 수 있지만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고, 둘째는 의도를 고려한 개념으로 주관적 개념이 판단에 개입될 수 있으며, 의도만으로 공격행위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다(하문선, 김지현, 2013).

공격행동의 결과와 의도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Bandura(1973)는 관찰 가능한 행동 뿐 아니라 지각된 의도 등을 고려하였다. Orpinas와 Frankowsk(2001)은 공격성이란 의도적으로 생명체를 해치거나 상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을 가진 모든 형태의 행동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때리고 위협하고 욕하고, 말다툼하는 외현적인 신체, 언어 공격성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정서 상태인 분노도 포함되어 있다(김경아, 2008 재인용).

공격성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발견되는 가장 흔하고 널리 알려진 문제행동이다(곽상은, 2013). 아동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비행, 범죄, 정신병리, 낮은 학업성취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ie & Dodge, 1998).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높은 수준의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종종 품행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진단되기도 한다(곽금주, 1998). 공격적,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품행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를 지속적으로 보일 위험이 높다(Loeber & Dishion, 1987). 그러므로 공격적인 청소년은 계속해서 다른 부적응 보일 잠재가능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김경아, 2008 재인용).

공격적인 청소년은 자기중심적이며, 참을성이 없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을 뿐더러 건설적이지 않으며 대결을 피하지 않고 타인을 착취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김자영, 2012).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사회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이며 다른 어느 과정 중에 있는 연령층보다 분명 태도나 행위의 변화가 많다(곽금주, 문은영, 1995). 변화 중에 하나가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데, 청소년 시기에 또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취약감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최보가, 임지영, 1999).

공격성의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는데 Hartup(1974)은 적대적 공격성과 도구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적대적 공격성은 상대에 대한 적대감에 의해 해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행동을 말하며, 도구적 공격성은 물건, 영역, 특권 등의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행동을 말한다. Frodi, Macaylay와 Thome(1977)은 공격성을 신체적, 언어적, 직접적, 간접적 공격성으로 나누었다. 신체적 공격성은 공격 대상에서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모든 반응이고, 언어적 공격성은 언어를 매개로 상대에게 심리적·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모든 반응을 의미한다. 직접적 공격성은 화나게 만든 사람 즉 공격성을 유발시킨 대상을 공격의 표적으로 하는 것이고, 간접적 공격성은 공격성을 유발시킨 대상 외의 다른 대상을 향하거나 일정한 대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Dodge와 Coie(1987)는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는데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 상황에 반응하는 것으로 공격성의 정서 유형과 관련이 있다. 주도적 공격성은 타인에 대한 지배 등의 특정한 보

상을 위하여 일으키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하는 협오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Crick과 Grotpeter(1995)는 공격유발 대상에게 직접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을 행하는 외현적 공격성과 집단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 또는 위협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주는 간접적인 형태의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하문선, 김지현 2013 재인용).

최근 개인의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반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격성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3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적대감, 분노감,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공격성의 특질을 나타낸다는 Buss와 Perry(1992)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공격성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요소가 상호 관련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경미, 2009).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가장 흔히 알려진 문제행동으로 아동기에서 초기 성인까지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공격적,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적대적 반항장애나品行장애를 지속적으로 보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공격성을 적대적-도구적, 신체적-언어적, 직접적-간접적, 반응적-주도적, 외현적-관계적 등의 단일 차원으로 구분하여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다 보니 청소년의 다양한 공격성의 속성을 보여주기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3. 또래애착

청소년기는 일차적 애착대상인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특한 친밀감을 표현하는데, 대개 친밀감이 또래 청소년들과의 그룹 유대감이나 동질의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박미란, 이지연, 2009). 청소년기는 우정과 친구의 개념이 중요해지는 만큼 또래로부터의 수용은 친밀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소속감을 제공하고 가족을 통해 얻어왔던 정서적 지원의 일부를 또래로부터 지원받게 된다(노향희, 2008). 또래란 연령, 성별, 학년의 수준에서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발달과 행동이 유사하며, 사회적으로는 동일

시되어지고,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Perry & Bussey, 1984). 청소년은 또래집단으로부터 가정 이외의 외부에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도움을 받으며 당면한 공통의 문제와 고민을 공유하고 전형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는다(문은영, 1994). 청소년기의 긍정적 또래관계는 수직적, 위계적인 성인들과의 관계에서와 달리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균형적 상호작용의 맥락을 제공해준다(김진경, 2002).

Ainsworth(1989)가 제시한 청소년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성인의 충고보다 또래의 의논 결과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가정 이외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청소년기 또래와의 친밀한 접촉으로 건전한 또래 애착은 후에 청소년의 사회생활까지도 연결 될 수 있는 것이다(김예리, 2002). 청소년들에게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또래애착은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사회적 지지를 얻게 하며 정체감,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유미녀, 2013).

Bowlby(1958)는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이며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려는 행동 혹은 그 접근이 손상되었을 때 회복하려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애착에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애착대상이 부모에게서 또래로 확대되는 시기로, 애착관계의 초점이 차차 가까운 친구 및 동료에게로 전이되는데, 이러한 전이는 부모에 대한 의존의 감소를 의미한다(최옥현, 2006). 이는 애착이론이 청소년기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청소년기에는 가족 밖에서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김혜진, 2007). 청소년기는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래에게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부모에게 독립적인 성향이 커지면서, 또래애착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김수진, 2005 ; 서주현, 2001). 청소년들은 부모·가족 환경에서 충족되지 못한 필요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래 환경에서 그 필요들을 만족시켜 나가기 시작한다. 그 결과 청소년기에는 친구와 또래 세계로

향하게 됨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는 현저하게 멀어지며 심지어 억제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Blose, 1979; Coleman, 1961; Douvan & Adelson, 1966).

Grotevant와 Cooper(1986)는 청소년기 애착관계가 부모의 일방적인 권위 중심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적인 관계로 재협상을 이루는 형태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Bruhmaster와 Furman(1987)은 청소년기 애착의 특징은 또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또래는 부모만큼 위협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주기 때문에 부모-자녀보다 훨씬 더 또래관계가 평등하다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청소년기는 근본적인 가치, 규범, 행동 등에 대한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또래 집단의 영향이 부모의 영향보다 커지는 시기로 (Coleman, 1961), 인지적,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들로 인해 중요한 전환기로 고조된 위험의 시기라고 밝히고 있다(Elliot & Feldman, 1990). 실제로 우울, 품행장애, 자살 그리고 약물과 알코올 중독 등의 비율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증가한다(Adams & Guullotta, 1989).

Weiss(1982)는 청소년기의 또래 애착의 중요한 측면을 청소년들의 도전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또래의 능력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고, 또래집단은 청소년기의 사회성이나 성격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춘재, 1988). 청소년 시기에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는 청소년의 자기 개념, 심리적 적응, 신체적 건강상과 강한 연관이 있으며 또래애착과 다양한 부적응 행동과의 연구에서 또래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청소년은 우울, 불안을 비롯한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Armsden & Greenberg, 1989).

지금까지 또래애착의 안정성이 청소년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적 주장을 살펴보았는데, 청소년기에 또래는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고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또래애착을 중심으로 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4. 선행연구의 고찰

가.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

Holmbeck과 Leake(1999)는 분리-개별화 척도(SITA)는 다면적 인성평가(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MMPI-2)를 이용하여 분리-개별화와 청소년기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분리-개별화 척도의 대부분의 하위 요인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임재선, 2014 재인용). 이에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려고 한다.

분리-개별화와 대상관계수준은 분리-개별화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며(사미경, 2009), 분리-개별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아분화, 심리적 독립이 혼용되고 있다(이시연, 2013). 심리적 독립은 부모와의 의존적 유대, 결속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를 맺고 사고와 행동의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Josselson, 1988). 자아분화란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고 정서적으로 성숙하며 자신이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를 뜻한다(Bowen, 1976). 그리고 분리-개별화척도를 이용하여 대상관계수준을 측정함에 따라 대상관계수준, 자아분화, 심리적 독립에 관련된 연구도 함께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미란(1994)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고,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적대감이 심하고 분노, 공격성, 격분, 울분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한동현(2012)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완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불안을 포함하는 정서적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이 심하다고 밝히고 있다. 권미영(1993)의 연구결과는 전체적인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 때 신체증,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불안, 적대감, 편집증, 공포불안, 정신증 등 부적응 증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김진기(2007)의 연구에서는 대상관계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서, 사고, 행동 면에서 미성숙한 면을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정서적

측면에서 높은 정서표현의 양가감정과 인지면에서의 낮은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 행동 면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 중심적 대처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나미화(2007)의 연구는 대상관계 수준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관계 수준이 높고 대상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을수록 행복감이나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혹은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 부적 정서는 더 늦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숙(2010)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가 비행과 공격성 등의 증상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이정혜(2004)의 연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대상관계이론을 바탕으로 양육자로부터 분리-개별화 되지 못하여 건강한 자기감을 확립하지 못 할 때 공격성이 야기한다고 하였다. 김성란(2007)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다는 결과나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와 공격성 두 변인을 가지고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분리-개별화와 유사개념을 가지고 한 연구를 통해서 분리-개별화가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분리-개별화가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과의 관계

청소년은 부모와의 정서적 공유가 어려워짐에 따라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반면,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청소년 시기에 또래집단은 서로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Gross & Siperstein, 1997). 청소년은 또래에게 많은 의지를 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한다(이지현, 2012). 또래는 단순히 비슷한 연령끼리의 관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와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되는 관계로 보고 있다(김선자, 조옥귀, 2003).

청소년기의 또래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기가 부모와의 관계를 넘어 다양한 또래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고, 이러한 또래 관계는 다시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또래관계

에서의 결핍이나 문제는 생활의 부적응을 겪게 한다(한상철, 2004). 또한 이 시기의 또래관계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이 되어 한 개인의 행동규범을 선정하고, 성격형성 및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이지현, 2012).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무조건적인 부모의 지지와는 다른 종류의 애착으로 갈등과 대립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황창순, 2006).

대상관계수준은 분리-개별화 척도로 측정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대상관계 수준과 또래관계에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상관계수준은 개인의 전반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대상관계수준은 긍정적인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안나, 노안영, 임수진, 2008). 이지현(2012)의 연구에서는 대상관계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사고·행동 면에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때 심한 양가감정을 느끼게 되거나, 인지적으로도 부정적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므로 대상관계 수준은 대인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대상관계수준을 분리-개별화수준 척도로 측정한 한미현(2004)연구에서 아동의 또래관계 양상을 분석한 결과 대상관계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성이 좋고, 친밀성이 높으며 또래 활동에 적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육자와 성공적이지 못한 분리-개별화는 낮은 자아분화를 초래하여 자신의 부정적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대처하지 못하며, 자신의 정서를 타인에게 표현할 때 심한 양가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진기, 이지연, 김진숙 2007)

박슬기(2011)연구에서 분리-개별화와 또래 관계의 질의 관계는 남·여 고등학생 모두 분리-개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 관계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혜진(2007)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와 또래 애착이 높은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 윤정연(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이 대인관계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선행연구에서 분리-개별화(separation and individuation)는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 크게 주목받고 있는 변인으로, 본격적 대상관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분리-개별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이지현,

2012). 이는 또래애착이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두 변인간의 관계가 서로 밀접함을 보여준다.

다. 또래애착과 공격성과의 관계

청소년기에 친구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면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시기를 놓치게 되어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또래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평판을 듣게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고독을 느끼며 비행은 보다 많이 하게 된다. 즉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공격성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또래관계를 통해 역할 취득이나 자기에 대한 이해, 사회적 규칙에 대한 이해 등이 촉진되기 때문이다(문은영, 1994).

아동의 적응에서 공격성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특히 사회적, 심리적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er & Asher, 1987). 사회적,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한 변인으로 또래애착 있는데, Bowlby(1973)는 아동의 애착욕구가 거부당하면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애착대상은 부모 외에도 교사, 친구 등이 가능하며, Bowlby(1982)는 애착대상이 인생 초반에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인 반면, 청소년의 경우 가정 이외의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서 또래집단, 교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 진다고 하였다.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예측변수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정혜인, 2013), 비행은 공격성과 관련되어 있어 또래애착이 공격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래애착과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와의 애착정도에 따라 정서와 행동문제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김현순(2005)의 연구결과와 또래애착에서 배척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비행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난 문은진, 윤진(1994)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또래관계가 수용적일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지고,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양점도, 박영국, 2009). 또 또래애착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덜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고(황숙영, 2007),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

서 적대적 공격성이 높았다(임연진, 1998). 그리고 이상균(1998)과 강규영(2003)의 연구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정구(1999)와 정재임(2000)의 연구에서도 교사관계와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갈등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반사회적인 행동경향이 높고, 교사와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가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아(2010)는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의 감소를 나타냈다.

공격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장서연(2005)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또래애착이 높아야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수하(2005)연구에서는 또래관계가 안정적일수록 학교생활 적응과의 높은 관계를 보였고,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최지은, 신용주, 2003). 이아영(2011)의 연구에서는 친구애착과 교사애착이 높은 아동들이 학교 적응력이 높게 나타나 공격성이 낮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안정된 또래애착은 긍정적 자기개념, 생활만족, 안녕감, 정신건강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이혜련, 2004), 위의 선행연구들은 또래애착과 공격성을 관계를 시사하는 연구로, 또래애착은 공격성을 설명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청소년의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졌다. 또래애착에 관한 연구는 공격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영향

지금까지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이 각각 공격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선행변인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진 청소년들은 비행과 공격성 등의 증상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숙, 2010). 또한 분리-개별화를 대상관계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대상관계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사

고·행동 면에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상대에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때 심한 양가감정을 느끼게 되거나 인지적으로 부정적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기, 이지연, 김진숙, 200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분리-개별화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은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분리-개별화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감소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강윤주(2013) 연구에서 공격성에 미치는 또래애착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또래애착이 공격성을 예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수현(2013) 연구에서는 여학생인 경우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는 공격성이 또래애착에 영향을 받으며 또래애착이 높으면 공격성이 감소함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은 공격성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이다.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수록 공격성은 감소할 뿐 아니라, 동시에 또래애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또래애착은 공격성에 더욱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또래애착이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리-개별화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매개효과를 살펴본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하여 분리-개별화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김효숙, 2010). 따라서 또래애착을 매개요인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매개요인으로 제시한 것이기에 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부모와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과의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만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있다. 김효숙(2010)의 연구에서는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분리-개별화와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보았고,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유사연구로는 임재선(2014)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와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공격성, 또래애착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분리-개별화는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을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한데,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보다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많아지고, 부모와 보내는 시간보다는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분리-개별화 보다 청소년의 또래애착이라는 변인을 증진하도록 돕는 것이 공격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한 연구 김효숙(2010)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적 사고 대신 또래애착으로 그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구분하고 남학교 여학교를 구분하여 각각 한 곳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였다. 남고 특성화고는 존재하지 않아 남학생이 비율이 가장 많은 한곳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총 4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4개 고등학교를 선정 후 2학년에 재학 중인 각 학교 15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600명 응답자의 질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103부를 제외한 497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III-1. 인구학적 통계

(n=497)

변인	문항구분	n(%)
성 별	남	222 (44.7)
	여	275 (55.3)
학교 계열	일반고	266 (53.5)
	특성화고	231 (46.5)

2. 연구도구

가. 분리-개별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Levine, Green과 Millon(1986)의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도(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SITA)를 장근영과 윤진(1992)이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5점 Likert척도로써 5점은 '매우 그렇다'에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부모와의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분리-개별화가 잘 안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분리-개별화 하위요인 중 자기몰입, 건강한 독립, 친구와의 결속 문항은 역산하였다.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심리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함입불안(engulfment anxiety)은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로 인해 자신의 독립성과 개별적인 정체성에 위협을 받아 불안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둘째, 자기몰입(self-centeredness)은 자신의 능력과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도취감의 정도를 나타낸다. 셋째, 분리불안(separation anxiety)은 부모와 떨어져 스스로 사회생활을 해가는 상황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나타낸다. 넷째 건강한 독립(healthy separation)은 분리-개별화 과정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과 관련된다. 다섯째, 거부에 대한 기대(reject expectancy)는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방어적 불안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의존부정(dependency denial)은 의존욕구에 대한 회피와 관계된 내용이다. 일곱째, 공생관계(nurturance-symbiosis)는 강한 의존욕구를 소유하며 이런 욕구에 대한 만족과 기대에 따른 긍정적 느낌 등을 기술하고 있다. 여덟째, 친구와의 결속(perrengulfment)은 친구와 친밀한 관계가 강해진 정도를 나타낸다(서민옥, 2010 재인용).

장근영과 윤진(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분리-개별화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고 김인경(1993)의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 대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7로 나타났다.

표 III-2. 분리-개별화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자기몰입	2*,13*,18*,30*,33*,38*,54*,58*,63*,66*	15	.87	
	,67*,70*,71*,73*,76*			
건강한 독립	5*,11*,17*,22*,29*,35*,42*	7	.47	
가독립 개별화	거부기대	7,15,25,26,44,49,53,59,62,64,65,68	12	.86
	의존부정	12,16,23,27,28,31,40,43,47,55,74,78	12	.77
	친구와 결속	20*,34*,37*,39*,45*,51*	6	.65
전체		52	.88	
합입불안	1,6,9,32,56,57,79	7	.76	
공생관계 - 일차적 불안	분리불안	3,4,8,10,21,24,36,41,46,52,60,69,75,80	14	.74
	공생관계	14,19,48,50,61,72,77	7	.54
	전체	28	.79	
전체		80	.87	

* 역문항

나. 공격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질문지를 서수균, 권석만(2002)이 번역하여 수정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수는 신체적 공격성 9개 문항, 언어적 공격성 5개 문항, 분노감 7개 문항, 적대감 8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로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웬만큼 그렇다’ 3점, ‘꽤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의 특징이 강한 것이다. 4개의 하위요인은 첫째, 신체적 공격성은 타인의 신체에 공격성을 가하고자 하는 행동을 말하며, 둘째, 언어적 공격성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위협하고 저주하는 행동

을 말하며, 셋째, 분노감은 분하고 화를 느끼는 감정을 말하며, 넷째 적대감은 적으로 여기는 감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다

표 III-3. 공격성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신체적 공격	1,2,4,5,7,8,10*,11,13	9	.76
언어적 공격	3,6,9,12,14	5	.65
분노감	15,16,17,18*,19,20,21	7	.72
적대감	22,23,24,25,26,27,28,29	8	.84
전체		29	.88

* 역문항

다. 또래애착 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Revisd : IPPA-R), 김지연(1995)이 번역하고 수정한 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형식은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애착이 높고 안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김지연(199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로 나타났다.

표 III-4. 또래애착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의사소통	8	1,2,3,7,12,14,24,25	.78
신뢰감	10	5*,6,8,13,15,16,18*,19,20,21	.83
소외감	7	4*,9*,10*,11*,17,22*,23*	.56
전체	30		.88

* 역문항

3. 연구절차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제주시내 4개 고등학교의 학생부장교사와 면접을 통하여 질문지에 대하여 숙지시켜 4개 학교 2학년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질문지, 또래애착 질문지, 공격성 질문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검사가 끝난 후, 참가자에게 검사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검사의 성격상 절차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집단 간 차이 분석 및 변인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리-개별화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3)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이 포함되었을 때 더 작게 나타나야 한다. 또한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불완전 매개로 나누어지는데 완전매개는 (3)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는 경우에 말한다(김경희, 2009).

매개효과 검증 결과가 간접효과(Indirect Effect)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을 때도 유효한지 알아보기 위해, 간접효과 검증 방법인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Sobel Test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Z점수를 구할 수 있는데, Z점수의 절대값이 1.96 이상일 경우 $p < .05$ 수준, 2.58 이상일 경우 $p < .01$ 수준, 3.30 이상일 경우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안자영, 2009).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분리-개별화, 공격성, 또래애착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 매개, 종속 변인으로 선정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분리-개별화, 공격성, 또래애착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IV-1.와 같다.

표 IV-1. 분리-개별화, 공격성, 또래애착의 상관관계

(n=497)

	분리-개별화	공격성	또래애착
1. 분리-개별화	1.00		
2. 공격성	.35**	1.00	
3. 또래애착	-.61**	-.32**	1.00
평균	2.63	2.27	2.87
표준편차	.29	.53	.36

** $p < .01$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리-개별화, 공격성, 또래애착의 평균은 각각 2.63, 2.27, 2.87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의 경우 표준편차가 .53으로 학생들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분리-개별화는 공격성의 관계에서 ($r = .35, p < .01$)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은 높아진다.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의 관계를 살펴보면, 분리-개별화 ($r = -.61, p < .01$)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은 낮아진다. 또래애착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r = -.32, p < .01$)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 낮아진다.

2.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학생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단계는 독립변인 X와 매개변인 M의 직접효과를 확인한다. 두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 X와 결과변수 Y의 직접효과를 확인한다. 세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 X와 매개변수 M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 Y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다.

매개회귀 효과의 검증방법은 1단계와 2단계에서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투입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고, 매개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한 경우를 완전매개 효과로 분류하며,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를 부분매개효과로 구분한다. 매개회귀분석 단계는 아래와 같다.

$$1\text{단계} : M(\text{매개변수}) = i_3 + aX(\text{독립변수}) + e_3$$

$$2\text{단계} : Y(\text{결과변수}) = i_1 + cX(\text{독립변수}) + e_1$$

$$3\text{단계} : Y(\text{결과변수}) = i_2 + c'X(\text{독립변수}) + bM(\text{매개변수}) + e_2$$

$$4\text{단계} : Z_{sobel} = \frac{ab}{\sqrt{b^2 S_a^2 + a^2 S_b^2}}$$

매개효과에 대한 3단계 분석을 시행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다. 매개효과는 완전매개(full mediation)와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로 구분한다(노형진, 2014). 완전매개의 경우 매개효과 검증이 불필요하지만 부분매개의 경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이 요구된다. 부분매개 효과의 검증방법으로 Sobel 검증, Goodman 검증, Arioan 검증, 그리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등이 활용된다(노형진, 2014).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경우 Sobel 검증을 통해 부분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앞에서 상관분석을 토대로 검증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분리-개별화는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또래애착과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또래애착과 공격성 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이로써 분리-개별화, 또래애착, 공격성의 세변인은 또래애착이 매개변수로 고려되기 위한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우선 독립변인을 분리-개별화로 하고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분리-개별화, 또래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독립변인만 포함 했을 때와 독립변인과 가정된 매개변인을 함께 포함했을 때의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크기를 비교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은 표 IV-2.이 나와 있다.

표 VI-2.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n=497)

단계	변수	B	표준오차	β	t
1단계	상수	4.87	.12		41.37***
	분리-개별화 → 또래애착	-.76	.04	-.61	-17.08***
$R^2=.37$, $F=291.60$, $p=.000$					
2단계	상수	.57	.21		2.74**
	분리-개별화 → 공격성	.65	.08	.35	8.30***
$R^2=.12$, $F=68.88$, $p=.000$					
3단계	상수	1.82	.43		4.21***
	분리-개별화 또래애착 → 공격성	.45	.10	.24	4.65***
		-.26	.08	-.17	-3.29***
$R^2=.14$, $F=40.53$, $p=.000$					
Sobel Z 통계량		회귀계수(a) = .65		오차(a) = .08	
Z=7.37*		회귀계수(b) = -.48		오차(b) = .06	

*** $p < .001$

표 IV-2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분리-개별화가 매개변인인 또래애착에 유의미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귀계수($\beta=-.61$)가 유의미하였으며($t=-17.08, p=.000$), 분리-개별화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아진다. 분리-개별화 척도 점수가 높다는 것은 분리-개별화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의 관계는 37% 설명되고 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분리-개별화가 종속변인인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beta=.35$)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t=8.30, p=.000$),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를 12%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분리-개별화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아질 것이다.

또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가 매개변인인 또래애착을 포함한 3단계 분석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방정식에서 분리-개별화를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또래애착이 공격성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7$). 그리고 이때 독립변인인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에서 회귀계수($\beta=.35$)보다 3단계 회귀계수($\beta=.24$)가 감소하였으므로,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매개변인을 투입함으로써 12%($t=8.30, p=.000$)에서 14%($t=4.64, t=-3.29, p=.00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애착이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또래애착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Sobel-test는 Z값을 구할 수 있는데, 절대값이 1.96 이상일 경우 $p<0.5$ 수준, 2.58 이상일 경우 $p<.01$ 수준, 3.30이상일 경우 $p<.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 Sobel-test 검증 결과 Z값이 7.37로 ± 1.96 보다 높아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 I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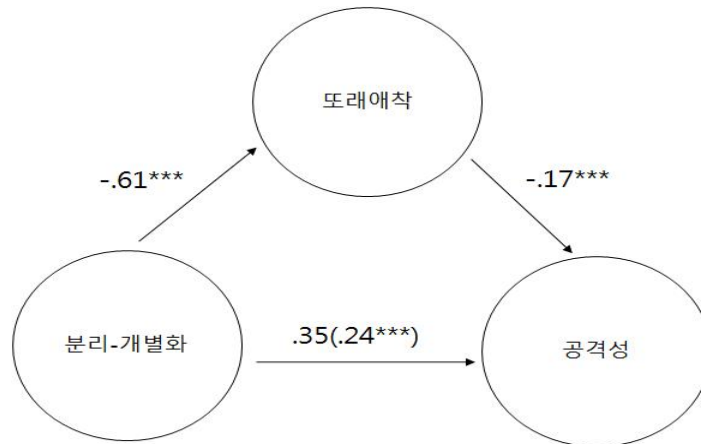


그림 IV-1.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즉 그림 IV-1.에서 독립변인인 분리-개별화가 종속변인인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가 회귀계수($\beta=.35$)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분리-개별화와 매개변인인 또래애착으로 가는 경로가 회귀계수($\beta=-.61$)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또 또래애착이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가 회귀계수($\beta=-.17$)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마지막으로 분리-개별화가 또래애착을 거쳐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가 회귀계수($\beta=.24$)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즉 분리-개별화가 또래애착을 거쳐 공격성을 가는 경로가 회귀계수($\beta=.24$)가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 회귀계수($\beta=.35$)보다 절대값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남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림 IV-1.과 같이 청소년의 분리-개별화는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래애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수준은 완전하게 공격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또래애착을 통해 일부 설명됨을 보여주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고등학교 학생 49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기보고용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은 높아진다.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분리-개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분리-개별화가 수준이 높으면 공격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를 대상관계수준, 자아분화, 심리적 독립과 유사한 개념으로 본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가 비행과 공격성 등의 증상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김효숙(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적대감이 심하고, 분노, 공격성, 격분, 울분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게 만드는 갈등이 낮아진다는 정미란(199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김진기(2007)의 대상관계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서, 사고, 행동 면에서 미성숙한 면을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정서적 측면에서 높은 정서표현의 양가감정과 인지면에서의 낮은 부정적 기분조절, 행동 면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 중심적 대처를 갖게 되는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위 결과는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임이 밝혀졌다.

둘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으면 또래애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성이 좋고, 친밀성이 높으며 또래 활동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한미현

(2004)의 연구결과와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수준이 높을수록 또래 관계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박슬기(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대상관계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사고·행동 면에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때 심한 양가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이지현(2013)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분리-개별화가 성공적이면 애착이 또래애착으로 확장되면서 청소년들이 또래 사이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또래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친사회적 행동도 발달되어 친구간의 갈등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면서 애착이 또래애착으로 확장되어 가는 시기로 분리-개별화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또래애착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또래애착이 높으면 공격성이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애착이 높은 아동들이 학교 적응력이 높아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이아영(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가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정구(1999)와 정재임(2000)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정혜인(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예측변수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보고를 지지한다. 윤진아(2010)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의 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이주리(2008)의 연구와 비행청소년들은 친한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는 임진섭, 김명일, 한은영(200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바로는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감소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대표적인 문제행동인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또래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게 하여 청소년기의 공격성을 감소시켜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청소년에게 건강한 또래애착을 형성하여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맺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들은 결론적으로 분리-개별화는 공격성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이며, 청소년의 또래애착 역시 공격성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공격성이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관점에서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을 매개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하여 분리-개별화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해동의 연구를 살펴본 기존의 김효숙(2010)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인데,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김효숙(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동적 사고 대신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매개변인으로 작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즉 분리-개별화의 성공여부가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는 하나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것이 청소년의 공격성의 감소에 도움이 되어,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적 독립을 가져올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론적으로 또래애착이 두 변인의 영향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분리-개별화는 공격성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고 분리-개별화와 공격성을 관계를 설명하는데, 다른 변인들이 개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개입될 수 있는 변인 중에 하나가 또래애착임이 밝혀졌다.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2차적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고 애착이 부모애착에서 또래애착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또래애착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상관계이론에서 분리-개별화 되지 못하면 자기감 형성이 성공적이지 않아 공격성이 나타난다는 이론적 근거가 있는데, 또래애착이 자기감 형성에 관계됨을 시사해 준다. 이에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래애착을 매개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다. 이는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또래애착이 중요성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시기로 또래애착을 안정화하여 공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적 적응

을 도울 수 있다. 청소년은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자율성을 보이고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는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수용적이고 청소년의 문제행동 대한 위험도를 낮추어 준다는 사실로 해석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심리적으로 독립하고자 하고 또래에게서 정서적 지지와 안정을 얻고자 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격성을 줄이는데 또래애착이 부분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리-개별화 수준은 또래애착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록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특징 중에 하나인 또래애착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하면 청소년의 공격성을 줄이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학교나 상담기관에서는 또래애착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위험요인인 공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에 대해 메타분석의 결과를 보면, 이론적 접근에 따른 분류에서 대상관계이론을 도입하여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연구가 1편인데 비해 인지·정서·행동치료 이론을 근거로 한 연구는 36편이다(유수정, ..2011). 이는 대상관계이론을 근거로 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 연구가 다른 이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되지 않음을 뜻하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관계이론의 개념인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변인을 검증함으로써 다양한 이론의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이는 학교에서 다양한 공격성 감소프로그램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중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은 제주로 제한되어 있다. 분리-개별화, 또래애착, 공격성은 인간의 발달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고등학생 및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발달단계별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일반화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은 편리하고 단기간에 많은 수의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평가 할 때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응답자의 주관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AQ(Buss & Perry, 1992)를 서수균, 권석만(2002)이 번역하여 수정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공격성은 성차의 차이를 보이는데, 신체적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외현적 공격성은 주로 남학생에게 나타나고(서미정, 2009), 여학생은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데(이경희, 1998), AQ(Buss & Perry, 1992)는 관계적 공격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결과는 여학생의 공격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고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이 매개효과가 나타난데 의의가 있으며 둘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공격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공격성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는 고등학생의 생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규영(2003).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불안과 공격행동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윤주(2013). 초등학생의 또래애착과 공격성의 관계 : 명시적 자존감 및 암묵적 자존감의 역할.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1998). 사회인지발달적 관점에서 공격성의 평가와 증재에 대한 탐색. 심리과학, 7(2), 1-18(18쪽)
- 곽금주, 문은영(1995).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청소년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1-11.
- 곽상은(2013). 애착, 비공식 낙인, 공격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영(199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용경(2003). 비행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불안 및 공격성에 관한 조사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렬(2014). 청소년 애착유형이 공격성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2009). 고교생의 공감, 또래영향력,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47(1), 49-72.
- 김경아(2008). 부정적 또래관계와 역기능적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09).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933-945.
- 김선자, 조옥귀(200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존중감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3(1), 361-385.
- 김성란(2007).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우울증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 논문.
- 김세영(2004). **아동의 분리개별화가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임, 김창대(2009).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상담학 연구**, 10(3), 1573-1591.
- 김수진(2005). **고등학생의 애착수준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구(2004).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예리(2002). **비이혼가정 자녀의 이혼지각 및 또래애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경(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연구 : 가족관계, 분리개별화 및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자영(201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기(2007). **대상관계 수준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의 양가감정과 부정적기분조절기대치를 매개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경(2001). **아동의 조망수용능력에 따른 대안간 갈등상황 인식 및 해결방안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기(2007). **대상관계 수준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의 양가감정과 부정적기분조절기대치를 매개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기, 이지연, 김진숙(2007). 대상관계수준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를 매개로. **상담학 연구**, 8(4), 1234-1261.
- 김현순(2005).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2007). 어머니의 양육이 모-자녀 갈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에 미치는 영향 : 또래 애착의 중재효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숙(2010). 청소년의 부모 분리-개별화와 외현화의 관계 - 정서적 조절과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미화(2007). 청소년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대상관계수준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향희(2008). 애착, 정서표현갈등, 그리고 대인불안 사이의 관계: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형진(2014). 회귀분석과 일반선형모형. 서울 : 한울
- 문은영(1994).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진, 윤진(1994).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44-63.
- 박미란, 이지연(2007). 또래애착이 초기청소년기 우정관계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자존감과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5(2), 81-95
- 박성하(2005). 청소년기 애착, 대처양식,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해동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슬기(2011). 남녀 청소년의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또래관계의 질 및 우울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민(2010). 청소년의 교사에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3), 75-88
- 박지연(2007). 청소년의 불안정애착, 공감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은령(2003). 청소년상담실에서의 가출청소년지도: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연구. 교육개선연구, 제19집, 87-109.
- 백옥경(2010). 대학생의 분리-개별화와 자아존중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빈송미(2007). **고등학생의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정(2009).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 사미경(2009).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이 공감능력을 매개로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민옥(2010). **분리 개별화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집단따돌림 피해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상담심리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수균, 군석만(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서주현(2001).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상화(2009). **부모애착 및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과의 관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자영(2009). **청소년의 분노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점도, 박영국(2009). 가족 요인과 또래지지가 자기효능감 및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211-235.
- 유미녀(2013).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211- 235.
- 유수정(2011).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연(2001).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성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아(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1998).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하(2005).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연(2013). **부모와의 초기 애착과 대학생의 분리-개별화 및 낭만적 애착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은, 이재창(2004).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질적 분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07-226(20쪽).
- 이아영(2011). **청소년의 공격성의 영향요인: 부부간 폭력과 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구(1994).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혜(2004). **대상관계이론에 근거한 아동의 공격성 감소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리(2008). 중고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과 비행.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7(4), 563-574.
- 이지현(2013).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근(2005). **가정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애착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1988). **청소년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이혜련(2004). **대학생들의 부, 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 고양적 편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연진(1998).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재선(2014). **초등학생의 분리-개별화와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또래 관계 질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진섭, 김명일, 한은영(2009). 공감, 자아존중감, 개인가치관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을 중심으로. **뇌교육연구**, 7, 33-70.
- 장근영, 윤진(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분리-개별화 및 역할 취득 수준과의

-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5(1), 157-175.
- 장서연(2005). **고등학생의 또래애착과 자기고양적 편향 및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안나, 노안영, 임수진 (2008). 지각된 초기 대상관계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2),727-737.
- 장휘숙(1997).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지: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정미란(1994). **청소년 발달시기에 따른 자아 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임(2000).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및 중독관련 문제점 및 대책. **청소년·법·심리 법심리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7-37.
- 정혜인(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 또래애착과 공격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1999). **인간발달**. 교문사
- 조수현(201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애착이 1년 후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소형(2009).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 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최옥현(2006).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 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하문선, 김지현(2013). 관계성과 우울을 매개로 한 초기 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의 관계. **아시아연구**, 14(2), 235-259(25쪽)
- 한동현(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명숙(2013). **대상관계 부모훈련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분리-개별화**

-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2004).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2004). 청소년 심리학. 한국청소년개발원.
- 황숙영(2007). 부모 애착, 부모 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창순(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1), 201-225.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 University of Vermont.
- Adams, G., & Gullotta, T. (1989). *Adolescent Life Experience*, Wadsworth. Belmont. CA.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6, 427-453.
- Asher, S. R. (199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S.R. Asher, & J.D. Coie (Ed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New York.
- Bowen, M. (1976). *Theory in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Guerin(Ed). Family herapy. New York: Garden.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73). *Attachmentandloss: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2n ded.)*. New York : Basic Books.
- Buhrmester, B,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Buss, A. H. (1961).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ew York: Wiley.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343-349.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an & N. Eisenberg,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3, 779-862.
- Coleman, J. (1961). *The Adolescent Society : The Social Life of a Teenager and Its Impacton Education*, Basic Book, New York.
- Crick, N. R., & Gro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co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avid, C. F., & Kistner, J. A. (2000). Do Positive Selfe-Perceptions Have a Dark Side? Examination of The Link Between Perceptual Bias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28, 327-337.
- Dodge, K. A., & Coie, J. D. (1998). Social -information-procession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Douvan, E, & Adelson, J. (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 New York

Wiley.

- Elliot, G. J., & Feldman, S. (1990). Capturing the adolescent experiences. In Feldman, S., and Elliot, G. (eds).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Wiley, New York, pp.119-150.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 (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review of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3), 634-660.
- Gross, M. W.& Siperstein, G. N. (1997).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learning problems. *Exceptional Children*, 63(2), 183-203
- Grotevant, H., & Cooper, C. (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 A Perspective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nd role taking skill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9, 82-100.
- Hartup, W. W. (1974). Aggression in childhood: Development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9(5), 336-341.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th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lmbeck, G. N., & Leake, C. (1999). Separation-individu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5), 563-581.
- Josselson, R. (1988). Finding herself: Pathways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en. San Francisco : Jossey-bass.
- Levine, J. B., Green, C. J.,& Millon, T. (1986).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1), 123-137.
- Loeber, R. & Dishion, T. (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2), 68-99.

- Mahler, M.,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 sys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 Basic Books.
- Orpinas, P., & Frankowsk, F. (2001). The aggre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50-67.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lider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J :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 Rice, K. G. (1992). Attachment in adolescence: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5), 511-538.
- Weiss, R. S.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Parkes, C. M., and Stevenson-Hinde, J(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al*. Basic Book. New York.
- Williams, K., & Lisi, M. (2000). Coping strategies in adolescents.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20*(4), 537-549.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ggression

Ko, Yu-jeong

Studying Counselling Psychology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structed by Prof. Choi, Bo-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igh school students' separation-individuation, peer attachment, and aggression, and to look into the mediating effect of their separation-individu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ggression. To achieve the purpose, this researcher set up the study issue as follows:

Study issue: Does peer attachment mediate the effect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ggression?

To solve the issue,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600 male and female students going to four high schools located in Jeju in order to analyze adolescents' separation-individuation, peer attachment, and aggression. as analysis data, 497 questionnaire copies were used.

The measurement tool of this study was the questionnaire of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SITA) which was developed

by Levine, Green and Millon(1986) and translated by Geun-young Jang and Jin Yoon(1992). For the analysis of aggression, the questionnaire of aggression test, which was developed by Buss and Perry(1992) and translated and edited by Su-gyun Seoh and Seok-mahn Gwon(2002), was used. Also,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Revised(IPPA-R), which was developed by Armsden and Greenberg(1987) and translated and edited by Ji-yeon Kim(1995), was employed. For data analysis, SPSS for Windows 21.0 was used to conduc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separation-individuation, peer attachment, and aggression. The high score of adolescents' separation-individuation means a low level of separation-individuation. The higher the separation-individuation score was, the more aggression there was, and the less peer attachment there was. Also, the more peer attachment there was, the less aggression there was.

Secondly, adolescents' separation-individua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both their aggression and peer attachment. Also, peer attachment significantly affected aggression.

Thirdly, peer attachment gave partial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ggression.

As shown in the results, there were highly effect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separation-individuation, peer attachment and aggres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transfer from attachment to peer attachment in adolescence, a period of which separation-individuation from parents is made. Also it is required to apply a peer attachment program to reduce adolescents' aggression.

부 록

부록1. 분리-개별화 질문지	51
부록2. 또래예착 질문지	56
부록3. 공격성 질문지	58

청소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평소에 느끼는 여러분 자신, 주위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학문적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답해 주신 하나하나가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빠진 문항이 많은 설문지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 최 보 영

연구자 : 고 유 정

* 작성시 유의 사항

- 1) 한 질문에 한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2) 한 문항에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아래 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1. () 고등학교
2. 나이 : () 세
3. 자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빠짐없이 O표 또는 √표 해 주세요.
 - 1) 학교 ① 인문계고 ② 특성화고
 - 2)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 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부록1. 분리-개별화 질문지>

I. 다음은 여러분과 가족 또는 친구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내 생각과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O표 또는 √표 해 주십시오.

번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끔 부모님들이 나를 너무 과잉보호하셔서 숨이 막힐 것 같다.	1	2	3	4	5
2	나는 가끔 내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해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과업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1	2	3	4	5
3	혼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겁이 난다.	1	2	3	4	5
4	사람들이 나와 친하게 지내면서, 내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종종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5	나는 나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낼 때 모두 다 좋다.	1	2	3	4	5
6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나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1	2	3	4	5
7	가끔씩 사람들이 내게 정말로 해를 입히려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죽음에 대해 걱정이 많다.	1	2	3	4	5
9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내심 자녀들이 성숙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1	2	3	4	5
10	가끔 나는 누군가 나를 돌보아주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곤 한다.	1	2	3	4	5
11	나는 저마다 개성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	1	2	3	4	5
12	나는 아주 따뜻하고 애정이 있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1	2	3	4	5
13	나는 거울에 내 몸을 비춰보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1	2	3	4	5
14	내 부모님 중에는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흔히 짐작하신다.	1	2	3	4	5
15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말했을 때 나를 이해해줄만 한 사람이 없다.	1	2	3	4	5
16	나는 혼자일 때 가장 일을 잘하므로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방해만 될 뿐 별로 필요하지 않다.	1	2	3	4	5

17	나는 다른 사람과 아주 친하게 지낼 때도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1	2	3	4	5
18	내 친구들과 무엇인가를 할 때면, 보통 내가 대장 노릇을 하게 된다.	1	2	3	4	5
19	부모님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4	5
20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매우 편안하다.	1	2	3	4	5
21	나는 종종 친구들이 나를 버리거나 않을까 걱정하곤 한다.	1	2	3	4	5
22	친구들과 나는 서로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 약간씩 다른 차이도 있다.	1	2	3	4	5
23	내 삶에 있어서 사랑이란 것이 별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24	이성 친구들이 나와 절교할까봐 걱정하는 일이 자주 있다.	1	2	3	4	5
25	내 부모님은 내 계획보다는 당신들의 계획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쓴다.	1	2	3	4	5
26	내가 정작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그에게 의지할 수 없을 것이다.	1	2	3	4	5
27	나는 '나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28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1	2	3	4	5
29	비록 친한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과 친하게 지낸다.	1	2	3	4	5
30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드물다.	1	2	3	4	5
31	친한 친구가 없어도 내 삶은 풍족하다.	1	2	3	4	5
32	나는 종종 부모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들을 거역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33	가끔씩 나 스스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에 놀라곤 한다.	1	2	3	4	5
34	혼자 있을 때 친구 몇몇이 그림고 생각날 때가 있다.	1	2	3	4	5

35	비록 어떤 면에서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서로 닮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면도 역시 있다.	1	2	3	4	5
36	나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 세상을 거의 파괴해 버릴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매우 걱정하고 있다.	1	2	3	4	5
37	나와 사귀어 사람들은 대개 나를 그들의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게 된다.	1	2	3	4	5
3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망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39	내 친구 중에는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실제로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1	2	3	4	5
40	우정은 그것을 얻기 위해 드는 노력에 비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1	2	3	4	5
41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는 내게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42	나는 친구들과 잘 지내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 찬성할 없을 때는 언제나 반대의견을 말할 수 있다.	1	2	3	4	5
43	나는 사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2	3	4	5
44	내 부모님들은 내가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매우 무관심한 것 같다.	1	2	3	4	5
45	나는 내 친구 중 몇 명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	1	2	3	4	5
46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끌려 다닌다는 기분이 들곤 한다.	1	2	3	4	5
47	나는 사람들이 슬픈 영화를 보고서 우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8	나는 신이 내 곁에서 언제나 나를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신다고 믿고 있다.	1	2	3	4	5
49	가끔씩 내 부모님들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50	나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여 매우 걱정스럽다.	1	2	3	4	5
51	내가 누군가 진심으로 친해진다는 것은 보통 그들이 나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2	3	4	5
52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들과 더 친해지기를 기원 하곤 한다.	1	2	3	4	5

53	나로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신뢰하기가 매우 힘들다.	1	2	3	4	5
54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가끔씩 사람들의 눈빛에서 나를 부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2	3	4	5
55	나는 사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1	2	3	4	5
56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언제나 확인하신다.	1	2	3	4	5
57	나는 부모님이 나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신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8	사람들은 가끔 내 능력에 대해 놀라워하는 것 같다.	1	2	3	4	5
59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1	2	3	4	5
60	밤에 자기 전에 가끔씩,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그냥 내 곁에 있어주기를 원할 때가 있다.	1	2	3	4	5
61	신만이 내 삶을 아신다. 나는 신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1	2	3	4	5
62	만약 내가 누군가와 가깝게 지내야 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느라 완전히 지쳐버릴 것 같다.	1	2	3	4	5
63	나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감동시키곤 한다.	1	2	3	4	5
64	가끔씩 내 부모님들이 정말로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65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한, 내가 상처 입을 일은 없다.	1	2	3	4	5
66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에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이 나에게서 매우 즐거운 일이다.	1	2	3	4	5
67	나는 종종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낀다.	1	2	3	4	5
68	집에서 나는 자주 "혜방꾼"이 되는 것 같다.	1	2	3	4	5
69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큰 모임에 간다고 생각하면 겁이 난다.	1	2	3	4	5
70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71	내가 친구들과 함께 다닐 때면, 종종 내가 제일 주목 받는다.	1	2	3	4	5
72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부모님께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이 그립다.	1	2	3	4	5
73	나는 보통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 듣기 좋은 평을 듣곤 한다.	1	2	3	4	5
74	나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우정을 맺어야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75	나는 선생님에게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76	다른 사람들은 내 능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는 것 같다.	1	2	3	4	5
77	나는 내 부모님 및 형제들과 오래도록 함께 지내기 위해서 모두 같은 동네(도시)에 살기를 바란다.	1	2	3	4	5
78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내가 맺고 있는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1	2	3	4	5
79	나는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1	2	3	4	5
80	만약 선생님이 내게 화를 내거나 실망을 하고 계신다면 나는 무척 당황할 것이다.	1	2	3	4	5

<부록2. 포래앳착 질문지>

Ⅱ. 다음은 여러분의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내 생각과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O표 또는 √표 해 주십시오.

번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친구의 의견을 듣기를 좋아한다.	1	2	3	4
2	나의 친구들은 내가 무엇인가에 우울해 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에 민감하다.	1	2	3	4
3	나의 친구들은 토론을 할 때, 나의 의견을 고려해 준다.	1	2	3	4
4	친구들과 나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 하면, 내 자신이 바보 같거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1	2	3	4
6	나의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1	2	3	4
7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격려해준다.	1	2	3	4
8	나의 친구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1	2	3	4
9	나는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1	2	3	4
10	내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1	2	3	4
11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외롭다고 느낀다.	1	2	3	4
12	나의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잘 기울여준다.	1	2	3	4
13	나는 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14	내 친구들에게는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	1	2	3	4
15	내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에 화가 나면 그것을 이해해주려고 애쓴다.	1	2	3	4
16	내 친구들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2	3	4

17	내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갖는다.	1	2	3	4
18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화가 난다.	1	2	3	4
19	나는 가슴 속에 털어놓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내 친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20	나는 나의 친구들을 믿고 의지한다.	1	2	3	4
21	나의 친구들은 내 감정을 존중해 준다.	1	2	3	4
22	나는 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	1	2	3	4
23	내 친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1	2	3	4
24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와 걱정거리를 이야기한다.	1	2	3	4
25	친구들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에 관해 묻는다.	1	2	3	4

<부록3. 공격성 질문지>

Ⅲ.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에 느끼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내 생각과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O표 또는 √표 해 주십시오.

번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때로 나는 누군가를 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1	2	3	4	5
2	누군가 화를 한것 돋우면, 나는 그 사람을 칠지도 모른다.	1	2	3	4	5
3	나는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얘기한다.	1	2	3	4	5
4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도 되받아 친다.	1	2	3	4	5
5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치고받고 싸우는 편이다.	1	2	3	4	5
6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잦다.	1	2	3	4	5
7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1	2	3	4	5
8	나를 몰아세운 사람과 주먹다짐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9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면, 나도 그에 맞서 그들에게 한마디 해 줄 수 있다.	1	2	3	4	5
10	나는 누군가를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협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흔히 논쟁을 벌이게 된다.	1	2	3	4	5
13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1	2	3	4	5
14	친구들은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1	2	3	4	5
15	나는 화가 빨리 치밀지만 또 빨리 풀린다.	1	2	3	4	5

16	일이 뜻대로 안되었을 때 나는 화를 참기가 힘들다.	1	2	3	4	5
17	나는 때로 울분이 치밀어 참기 어려워 금방이라도 폭발해 버릴 것 같다.	1	2	3	4	5
18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다.	1	2	3	4	5
19	내 친구 중 일부는 내 성격이 불같다고 말한다.	1	2	3	4	5
20	때로 나는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난다.	1	2	3	4	5
21	나는 화나는 것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1	2	3	4	5
22	나는 때로 시기나 질투에 차있다.	1	2	3	4	5
23	내가 부당하게 대우 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스스로 있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아 보인다.	1	2	3	4	5
25	나는 때로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심한 적대감에 휩싸이곤 한다.	1	2	3	4	5
26	나는 소위 '내 친구'라는 자들이 나에게 대해 몰래 이야기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27	나는 지나치게 친한 척 하는 낯선 사람을 보면 의심이 든다.	1	2	3	4	5
28	나는 때로 사람들이 내가 모르게 나를 비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29	누가 내게 지나치게 친절하면,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된다.	1	2	3	4	5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